

텔레비전은 독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텔레비전과 독서의 관계

채 백 | 부산대 신방과 교수

텔레비전이 발전하면서 인쇄매체의 시대는 끝날 것이란 예언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출판의 종말을 불러오지는 못했다. 오히려 서구에서 출판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과 독서의 관계가 상극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낌표 없는 인생이라면? 아마도 상당히 무미건조할 것이다. 글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가끔씩 감탄사를 유발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재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느낌표>가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작년 가을 개편부터 새로이 MBC TV에 등장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책 관련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토요일 저녁 뉴스가 끝난 직후인 밤 9시 45분부터 방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텔레비전의 사회적 영향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텔레비전의 영향력 실감케 한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

일부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교보문고의 지난 1월 문학류 판매가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60%가 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 소개된 소설들이 판매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팽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창작과비평사)이 방송 이후 1997년 소설 《아버지》(김정현, 문이당)가 세운 주간 판매 기록 1천1백부를 거뜬히 넘어서 주당 3천7백부가 팔리더니 뒤이어 소개된 《봉순이 언니》(공지영, 푸른숲)는 주당 4천5백부가 팔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중앙일보》 2002. 1. 28자).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코너를 통해 소개된 책들이 단숨에 신기록을 세우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자 이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옹호하는 입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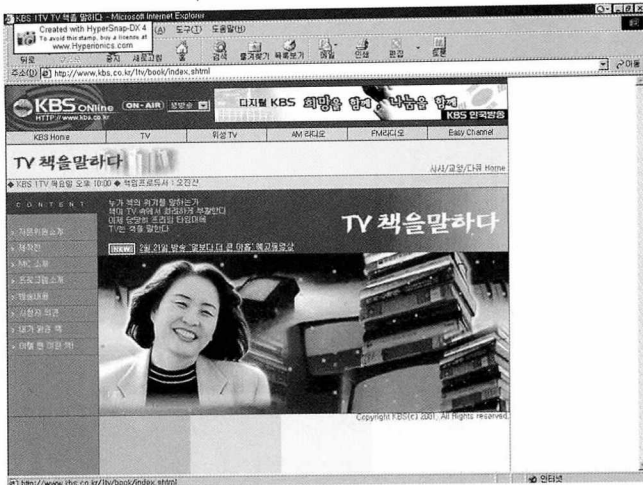
독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과 책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써 자금 흐름이 원활해져 소규모 서점과 도매상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비판하는 입장은 책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며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독서 행위를 희화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해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다면 이 프로그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비판론자들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매달리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출판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다. 이 프로그램은 IMF를 전후한 때부터 깊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출판계에 글자 그대로 하나의 '느낌표'를 던져주고 있다.

만성화된 출판계의 불황

텔레비전이 출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텔레비전은 책을 소개하거나 독서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오기는 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황금시간대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 편성돼 시청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텔레비전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KBS가 <TV, 책을 말하다>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예상외로 호평을 받아 같은 제목의 프로그램을 목요일 밤 10시에 고정 편성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꾸준한 시청자층을 확보하자 MBC도 가세해 연예인들까지 등장시켜 오락성을 가미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각 방송사마다 개성 있는 책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KBS 1TV의 'TV 책을 말하다' 홈페이지.

최근 출판계의 불황은 심각한 것이었다. 출판계의 불황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1997년까지 그래도 지속적인 신장세를 유지하던 출판계가 이 해를 기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7년 총 발행부수가 1억8천8백만부를 넘었으나 그 이듬해에는 1억5천7백만부로 감소하더니 1999년에는 7천5백만부로 급하강 곡선을 그렸다. 2000년에는 6천8백만부를 최저점을 기록하더니 2001년에는 7천4백만부로 다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출판계가 불황을 면치 못하는 것은 IMF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말았던 불경기의 탓도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발전으로 시장을 잠식당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 매체의 발전은 책을 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TV 앞 그리고 컴퓨터 앞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유통이나 경영의 측면에서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출판계의 불황은 만성적이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독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일반적으로 텔레비전과 출판은 상극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텔레비전이 발전하면서 인쇄매체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던 예언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했다. 이런 예언이 미국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등장했다. 1950년대에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그야말로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매체로 부상하자 성급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인쇄매체의 시대는 머지 않아 끝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들의 주장은 텔레비전의 매력에 심취한 현대인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텔레비전과 독서의 이런 상극 관계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책을 보라고 채근하는 부모들과 텔레비전을 보려는 자녀들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의 발전이 출판의 종말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오히려 서구에서도 그 이후 출판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출판 부문에서도 앞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들의 관계가 일반의 인식처럼 그렇게 반드시 상극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학에서 매체간의 관계는 경제학의 용어를 빌리면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설명한다. 모든 매체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공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매체가 다른 매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취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신문을 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녁 TV 뉴스를 보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TV 뉴스를 통해 생생한 현장 화면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 이는 인쇄매체를 통해서도 깊이 있고 분석적인 정보를 얻고 전파매체를 통해서도 생생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느낌표> 사례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이 특정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특정 소설을 드라마화하고 난 이후에 그 소설이 새삼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들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1991년 MBC가 방영했던 <여명의 눈동자> 같은 경우다.

텔레비전과 출판, 상호 발전의 길 찾아야

그러나 이런 몇몇 사례만으로 텔레비전과 출판의 관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출판은 모든 문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출판의 발전 없이는 다른 분야의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도 문학 작품 등의 훌륭한 대본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지난해 KBS의 특집 다큐멘터리 <TV, 책을 말하다>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의 영상문화나 컴퓨터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풍부한 독서가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텔레비전과 출판이 공생하면서 상호 발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채 백 교수는 서울대 신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산대 신방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미국의 언론개혁> <출판학> 등을 펴냈다.